

# 램프(Ramp)의 공간적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Ramp

이선영\* / Lee, Sun-Young  
이형근\*\* / Lee, Hyoung-Geun

## Abstract

In the architectural space of modern age, expanding to the vertical and horizontal direction for the interaction between space and space is becoming an indispensable factor, and in this expansion, ramps are being positioned 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With an increased use of ramps, they show a variety of changes in types, functions and even concepts. The space where modern ramps are used exhibits a phenomenon that accommodates and expands many functions as well as the confined function of moving people, and is widening the scope of recognition on the functions of ramp. In addition, this phenomenon can be seen as an architectural reflection on the complexation trend of the modern society, the components comprising a ramp contact the body of experiencers closely and thus have a direct effect on their behavior or feeling, and owing to this, it is a space where new functions and meaning are highly likely to be derived.

In this study, spaces where ramps are used stay away from an element of uniform vertical movement but have an independent environment within the entire space, thereby being used as a space dominating the nature of the building, not a subsidiary element of it. In this study, therefore, it could be known that spaces in which ramps are used are different in their meaning according to the patterns, not as an element of uniform vertical movement. In addition, these conclusions are the results by analyzing the patterns of ramps taking place in modern spaces and are thought to be helpful in understanding spaces where ramps are used.

키워드 : 램프, 경사, 수직성, 건축적 산책

Keywords : Ramp, Oblique, Verticality, Promenade Architecture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현대 건축공간은 공간뿐만 아니라 공간과 공간 사이를 간접하고 연계되는 확장된 의미로서 파악된다. 건축물이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면서 계단과 함께 램프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램프는 인간의 이동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자연적 장치이지만 현대건축에서는 이동의 기능과 램프가 지니는 특성을 한정된 기능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기능들을 동시에 수용하고 확대시키는 현상으로 통로 이상의 의미로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현대의 공간은 복합화

중첩이 가능한 기능들을 동시에 수용하거나 교차시키는 현상을 보이며, 공간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서 현대사회의 복합화 현상을 건축적 반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건축적 반영은 건축가만이 수용하는 것이 아닌 건축 작품을 통해 그 작품을 느끼고 상상하는 주체들과 연계성을 가지게 되며, 일련의 건축적 흐름에 의하여 램프가 다기능성의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현대의 램프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처럼 수동적인 성격을 띤 공간의 기능을 넘어서 인간의 능동적인 행동을 반영 한다. 다양한 문화현상을 반영한 구성 요소들이 수동적인 공간 구성요소들보다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함으로서 인간의 행동이나 감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이용자에 의하여 새로운 기능과 의미가 파생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건축을 경험하는 측면에서 볼 때 내부 공간을 통합하는 요소이며, 인간의 보행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장치가 되고, 계단에 비해 긴 동선을 만들어내어 산비탈

\* 정회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스페이스건축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전공 석사

\*\* 정회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스페이스건축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전공 석사과정

이나 골목길의 오르막길을 오르는 듯한 여정을 연상시켜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건축에 쓰여 지고 있는 램프 공간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램프 공간에 대한 이해와 연계된 공간구성과 개념변화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건축공간에 나타나는 램프의 특성과 유형을 분석하여 보다 확장된 의미에서의 램프와 진보된 램프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건축물에서 표현되고 있는 램프 공간은 형태뿐 아니라 공간의 수직 이동 요소로서의 형태 및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이것을 시대적으로 램프의 시각차와 활용정도에 따른 개념변화를 현대 건축물들의 사례분석을 토대로 램프의 본래적 기능과 개념 외에 어떠한 추가적 기능이 부가되면서 그 내재적 개념을 확장, 변화시켜 가는지를 알아본다. 이후, 일반 건축물에서 쓰이고 있는 slope, 경사로, 비탈진 길 등을 모두 램프(Ramp)라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1920년대의 이후 현대건축물 중 램프공간이 단순한 이동의 기능, 건축의 일부분으로 써가 아닌 램프 공간의 다양한 목적과 의미를 표현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램프 공간의 특성들이 현대건축에서 어떠한 형태로 작용하며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수직공간의 다양성에 관하여 서술하며 그 유형을 위치, 형태, 기능, 개념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 2. 공간에서의 램프 개념고찰

### 2.1. 램프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경사는 비스듬히 기울어진 상태나 정도를 말하며 램프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있는 통로를 말한다. 램프의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계단의 변형으로써 층단이 없는 것, 또는 물매진 복도 또는 통로이다”<sup>1)</sup>라고 규정하고 있다.

램프는 높낮이가 다른 수평면을 연결하므로 기본적으로 수직적인 특성과 공간을 연결하거나 이동시키는 경로성, 형태성을 지니고 있다.<sup>2)</sup> 램프는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속성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혹은 그 속성을 대신할 수도 있으며, 수평·수직적 역할에 따른 형태의 분할을 의도 할 수도 있다. 또한 동일 공간 안에서 바닥 레벨을 인위적으로 분리함으로 영역을 구분하거나 단조로운 공간에 리듬을 만드는 역할도 가능하다.<sup>3)</sup> 수직적으로 전개된 경계로서 인간의 이동을 평면적인 것에서 입체적인 것으로 차원을 확장시키며, 램프의 이동에 의한 체험 역시 평면에서의 이동의 느낌과는 다른 느낌을 이동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된다. 연결의 관점에서 램프는 부수적인 것이나 종속적인 것으로 될 수 있지만 공간과 공간의 연결 관

계의 성립에 있어서 램프는 독립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램프는 경사진 바닥판을 내부로 끌어들여 사용함으로써 건축을 수직적 요소로서 인식하게 하는 요소에서 벗어나 도시의 흐름을 건축으로까지 끌어들이게 하면서 건축 내에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낸다. 경사화된 건축공간은 거주하기에 보다 더 편리하도록 해주는 생성적인 원리를 사용함으로써 활동하는데 있어서 활성자가 될 수 있다. 이 원리를 뒷받침 하는 이론들의 부합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폴 비릴리오의 경사기능, 플로리안 베이겔의 랜드 스페이스, 가스통 바슐라르의 부드러운 수직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 (1) 폴 비릴리오<sup>4)</sup>의 “경사기능(the Oblique Function)”

‘이제 우리는 경사축과 경사진 설계를 따르기 위해 영원한 평면으로서 수평축과 수직상승축의 종말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경사는 새로운 도시질서의 창조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 언어를 전반적으로 재창조하는데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평단면의 기울임”, 즉 건축에 있어서의 제3의 공간의 가능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sup>5)</sup>

경사를 통한 도시 구조의 표면은 연속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각각의 공간 및 오브제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도시적·관념적인 의미-흐름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수직면과 수평면의 조합이 앞과 뒤의 대립성을 갖는다면 경사면과 수평면의 조합은 위와 아래, 즉 상부표면과 하측면을 만들어내면서 기울어진 바닥면은 수평성과 수직성의 양쪽 의미를 모두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기울어진 바닥면은 건축을 감각적인 몸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준다.

#### (2) 플로리안 베이겔의 “랜드스페이스(Land-Space)”

17세기 네덜란드 풍경 화가들이 장면(Scenery)으로 여긴 개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시 자체가 풍경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개념으로 랜드스케이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랜드스케이프와의 연속성이나 연결성을 지닌 도시적인 개입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랜드스페이스는 ‘사이’ 공간에 대한 추상적 개념이자 랜드스케이프의 본질을 도입한 예이다. 랜드스페이스는 대지와 자연을 인공화한 개체로 물리적 커뮤니케이션의

1)김평탁, 건축용어 대사전, 기문당

2)김영실, 리차드 마이어의 박물관 건축에서 나타나는 경사로의 특징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36.

3)윤희아, 다중이용시설 계단과 램프의 기능적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29.

4)Paul Virilio(1932~), 철학자, 도시계획전문가, 문화이론가 등 현재는 첨단기술·미디어 연구자로 불리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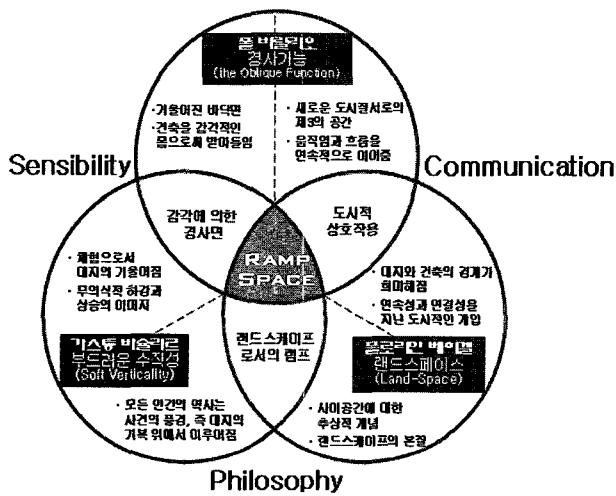
5)Pemala Johnston, The Function of the Oblique : The Architecture of Claude Parent and Paul Virilio, 1960-1996, AA Publishing, 1996, pp.11~13.

6)1993년 펜실베니아 대학의 좌담회(Constructing Landscape)와 1994년 AA School의 좌담회(The Recovery of Landscape)에서 건축가 플로리안 베이겔(Florian Neigel)이 연술한 랜드스케이프 개념.

공간이자,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모체가 되는 것이다.<sup>7)</sup> 램프스케이프의 추상적 개념이자 본질은 랜드스페이스로서 이때 가장 중요한 디자인요소는 기울어진 바닥면으로 생각했다.

### (3) 가스통 바슐라르의 “부드러운 수직성(Soft Verticality)”

바슐라르는 ‘릴케’의 시를 분석하면서 자신의 몸을 가볍게 만드는 기울어진 대지를 걷는 인간의 행위와 지형적 기복의 관계성을 언급하고 있다. 대지는 행위를 담을 수 없는 수직성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역사는 ‘사건의 풍경(A Landscape of Events)<sup>8)</sup>, 즉 대지의 기복위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의 기억에 미치는 몸의 체험이 곧 인간의 무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며 인간이 밟는 대지의 기울어짐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무의식적 하강과 상승의 이미지에 상관관계를 가짐으로써 장소 형성에 관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바슐라르는 ‘부드러운 수직성’이라 하며,<sup>9)</sup> 이것이 우리에게 수직성을 보드라운 수직성의 감수성을 가지고 읽도록 가르쳐 준다고 하고 있다.



<그림 1> 램프에 관한 이론적 배경

## 2.2. 공간에서 나타난 램프의 특성

### (1) 연결공간으로의 램프

내부와 외부의 연결- 건축물의 내부로 들어서기에 외부에서 출입구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 이러한 접근은 건물 내부공간과 건물 외부공간과의 연속적인 공간이 되며, 외부에서 내부로의 실제적인 공간의 이동을 유발시킨다. 출입구의 강조를 위해 여러 가지 형태적 요소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 중 램프는 형태의 동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다양한 재료와 다이나믹한 형태를 표현하여 입구성을 강조하며,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요소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수직공간의 연결- 건축물 내에서의 수직공간의 연결은 램프 자체의 역할로서 가장 일반적인 특성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공간을 연결해주며 구성 요소상 통로 역할을 말한다.

### (2) 중심성과 조형성을 가지는 램프

공간의 중심성- 공간내의 중심성은 장소의 성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인식요인이며 중심성은 공간의 주변상황과 부속적 공간등과 밀접하게 관계한다. 이런 관계는 규정된 공간 내에서 중심성을 가지는 공간을 중심으로 각각의 개별공간으로의 접근이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램프는 공간 전체의 중심에 사용되면서 집중적인 공간을 만들며 램프 자체가 중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공간의 조형성- 램프는 풍부한 표현과 형태를 가지고, 형태 속에 수직성과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성은 수직성과 맞물려 사선이나 곡선을 이용하여 공간에 맞는 조각적인 성격을 부여하거나, 공간에서 지배적인 성격을 가지는 형태요소 및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요소로 작용한다.

### (3) 공간의 다양화에 따른 특성

공간의 분할- 바닥의 높낮이를 줌으로써 공간의 영역을 분할하는데 분할된 공간의 중심적 요소로 사용된다. 램프를 중심으로 내부공간이 양분되면서, 공간의 성격 또한 분할하는 장치로 사용되어 폐쇄공간과 개방공간, 혹은 사적공간과 공적공간 등으로의 공간성격을 분할하는 역할을 한다.

공간의 개방, 폐쇄- 램프의 개방성은 내부영역과 외부영역을 시각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으로 확장, 연결시키며 시지각적 공간체험을 다양하게 만들며 형태적으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함으로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만든다. 반면에 폐쇄성은 공간과 공간을 분리하면서 영역성을 부여하고 이러한 공간에 또 다른 장소성의 개념을 부여함으로써 공간과 공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게 한다.

### (4) 램프의 위치와 형태에 따른 분류

위치- 건물과 램프의 위치에 따라서 램프의 공간유형은 내부형, 외부형, 벽부형, 벽사이공간형, 공간연결형 등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내부형은 공간에서 조형적 역할을 하며 중심적 의미를 가지면서 수직이동의 동선을 자유롭게 해주며 건물의 진입부에 주로 사용되는 외부형의 경우 건축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유도하는 과정에서 시각적 체험요소로서의 내·외부의 연결성을 가지고, 외부의 조형적인 역할을 한다. 수직동선의 기능을 집약화 시키는 벽부형은 내·외부 공간의 통합구성이 가능하며 개방과 폐쇄, 사선성과 역동성 등을 강조한다. 양쪽이 벽이나 유리로 막혀있는 벽사이공간형은 내·외부의 모호한 공간을 만들어 내고, 공간연결형은 다리의 성질을 공유하게 되면서 입체적 공간을 체험하게 만든다.

7) 소용수, 바닥면의 경사화를 통한 건축디자인 접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론, 2005, p.21.

8) Julie Rose, Paul Virilio, Bernard Tschumi, *A Landscape of Events*, MIT Press, 2000

9) Gaston Bachelard, 민희식 역, 불의 정신분석/초의 불꽃의, 삼성세계사상, 1990, p.457.

형태- 램프는 형태적 속성에 역동성과 사선성을 기본적으로 가지며 공간에서는 구체적인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공간내에 작용을 한다. 구심적인 방향성을 나타내는 나선형, 구조적 안정성과 공간분배를 용이하게 하는 “ㅁ”자형, 최소면적으로 수직이동과 깊이 있는 공간체험을 주는 “ㄷ”자형, 가장 기본적 형태를 가지는 “-”자형, 강한 상징성과 역동성을 나타내는 자유형, 다양한 조합으로 인해 다양한 체험의 효과를 주는 복합형으로 나타나며 이것들은 건축물 내에서 새로운 형태 축을 형성한다.

<표 1> 건축물에서 위치 및 형태에 따른 분류

위치 분류	이미지	평면	특성
내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구조를 연결.</li> <li>조형적 역할.</li> <li>공간의 영역을 분리.</li> <li>공간의 개별성을 갖게 함.</li> <li>수직이동의 동선이 자유로움.</li> <li>공간의 중심적 의미를 가짐.</li> </ul>
외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로 건물의 진입부에 사용.</li> <li>외부에서의 접근을 유도.</li> <li>시각적 체험요소로서의 연결성을 가지게 됨.</li> <li>건물외부의 조형적 역할.</li> </ul>
벽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직 동선의 기능을 집약화 시킴.</li> <li>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통합적 구성이 가능.</li> <li>개방과 폐쇄의 대비를 강조.</li> <li>사선성의 강조로 역동적 표현이 가능함.</li> </ul>
벽사이 공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쪽이 벽이나 유리등으로 막힘.</li> <li>어둡고 담담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음.</li> <li>색다른 체험이 가능한 공간이 가능.</li> <li>내부와 외부의 모호한 중간 영역의 확대.</li> </ul>
공간 연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체적 공간의 체험가능.</li> <li>다리의 성질을 공유하면서 극단적인 역동성이 가해짐.</li> </ul>

형태 분류	나선형	“ㅁ”자형	“ㄷ”자형	“-”자형	자유형	복합형
램프 이미지						
형태 추출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적인 공간</li> <li>구심적인 방향성</li> <li>중심으로서의 오보제적 요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조적 안정성</li> <li>보행의 안전성</li> <li>공간분배의 용이</li> <li>평면상 소비 면적이 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소면적으로 수직상승</li> <li>깊이 있는 공간체험</li> <li>최단거리로 상부로 이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능 · 구조</li> <li>상기장기본적</li> <li>심리적 질서감</li> <li>시각적 연속감</li> <li>공간의 지속적인 흐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변화</li> <li>강한상징성</li> <li>강한역동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기적 형태와 직선적 형태 등의</li> <li>다방한 조합</li> <li>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li> </ul>

### 3. 현대공간에서의 램프 유형 분석 및 특성

#### 3.1. 작품 유형선정 및 분석기준

도미노 시스템에 의해 구조와 형태가 분리되면서 수직 공간에 있어 계단과 램프 등의 자유로운 연결 구성요소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 따라서 시대적 범위를 도미노시스템이 출현한 1920년 이후로 하였고 현대의 다양한 의미와 개념을 내포한 램프를 선정하여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간에 부여된 특성 파악 및 의미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표 2> 작품선정의 기준표

범위	선정기준
시대적 범위	· 1920년대 이후 램프가 사용된 건축 작품.
사례공간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램프공간에 여러 가지 기능이 부합된 작품.</li> <li>· 램프의 형태적 특성이 돋보이게 표현된 작품.</li> <li>· 램프의 개념이 공간 내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확장되어 있는 작품.</li> </ul>

#### 3.2. 작품의 유형분석

램프의 동선요소는 기능적 특징상 별도의 조형처리가 요구되며, 이로 인해 형태상의 독특한 외관을 가지게 됨으로써 건축물에 중요한 조형 요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램프는 구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사선 혹은 곡선 등의 표현방식과 상부공간으로의 이동이라는 심리적 가치를 가지며<sup>10)</sup> 항상 새로운 시대정신의 표현요소가 되어왔다.

램프는 독립된 공간으로의 요소라기보다는 어떠한 공간과 공간으로의 연속성이나 수직이나 수평으로의 방향성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램프의 공간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램프의 공간을 인지하게 하는 요소는 폭, 경사도, 벽이나 바닥과의 접합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요소들의 변화를 시도함으로 체험하는 신체적 동작이나 감각에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좀 더 적극적인 형태 표출을 통하여 의미를 확장하게 된다. 우선 적절적인 형태 노출을 통하여 외관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방법과 고유한 형태 속성인 사선성을 입면요소로 사용한 방법을 통해 램프의 형태적인 면을 강조하게 된다. 현대에서의 램프기능은 이러한 속성들과는 관계 맷으면서도 새로운 의미로서 이해되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들을 각각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 할 수 있도록 위치, 형태, 기능, 개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표 3 참조>

#### 3.3. 현대공간에 나타난 램프의 유형적 특성

앞에 분석을 통해 보면 램프의 공간은 이동 통로의 역할 뿐 아니라 그 기능이 점차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도시가 점점

10)이경석,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수직통로 개념과 목적 공간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론, 2002, p.20.

<표 3> 현대건축 공간에 있어서 램프의 사례작품 연구 분석표

건물명 위치	작가 년도	이미지	분석내용			
			위치적 특성	형태적 특성	기능적 특성	개념적 특성
Villa La Roche Paris, France	Le Corbusier 1923		벽부에 위치하여 상부의 침을 통한 자연광 유인으로 체험자로 하여금 실내가 아닌 실외의 느낌을 가지게 함	곡선형 램프로 인연상 다양한 각도에서의 변화를 유도함	체험자는 램프를 오르면서 실내를 다양한 시선으로 접하면서 공간의 다변화를 꾀함	만곡된 벽은 어느 공간을 조형적으로 정의하고 주위를 둘러싸는 역할을 함
Villa Savoye Poissy, France	Le Corbusier 1929		건물내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모든 공간과 사물과 보이는 풍경을 관정하도록 함	현관으로부터 상부로 향해 2층의 옥상 정원까지 경사로를 오르며 점진적 시계보기 가능	수직공간사이의 연결수단으로 수직이동구조에 결합하게 되는 빛, 기둥, 개구부등의 공간요소들을 통하여 수직적 통합을 이룸	건축적 산책로Promenade Architecture의 개념으로 사용 외부의 연장 내부를 외부로 연장시키는 것과 같은 느낌
Guggenheim Museum New York	Frank Lloyd Wright 1959		경시로는 중앙에 천정부터 바닥까지 열려있는 원형 공간을 형성함	이랫방향으로 경시된 나선상의 경사로를 따라 전시공간이 이어져 있음	램프는 상하 수직의 공간이동 요소와 주변으로 공간 확장을 가능하게 함	관람자에게 운동성과 시간의 개념을 시지각적으로 체험 가능하게 함
Neanderthal Museum Mettmann, Germany	Gunter Zamo Kelp 1983		중앙에 계단실이 위치하며 상부에서 자연광이 비취짐으로 인해 방향성을 유도	내부공간 전체가 하나의 램프로 둘러싸여 있음	상호중첩을 통해 전시와 관람자 동선을 효율적으로 결합시킴	연속적인 흐름을 유도하며 이것은 진화의 효과적인 상장을 나타냄
High Museum of Art Atlanta, Georgia	Richard Meier 1983		구겐하임과 같은 나선형 경사로를 적용하면서 전시작품을 여러 시점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함	외부에 긴 진입 경사로를 가짐	나선형 경사로를 전시공간과 분리시킴	지역 사회의 사교적 기능도 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융통성 있는 공간이 계획됨
Barcelo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Barcelona, Spain	Richard Meier 1992		커튼월과 인접 설치된 램프를 통해 관람자를 수용하면서 디자인에 참여하는 시각적 체험을 제공함	개방된 유리커튼월을 통해 많은 자연광을 유입시킴 주동선역할을 하는 경시로는 외부공간과 전시공간의 원통역할을 수행함	공간구성을 자연광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있음 램프 아트리움은 계단을 하나로 연결해줌	관람자가 미술관에 들어서면 끊임없이 인식하게 되는 요소로 작용함
Kunsthal Temporary Art Center Rotterdam, Netherlands	Rem Koolhaas 1992		직육면체의 미술을 내부에서 관통하고 있는 거대한 램프로 밀접되어 이질적인 프로그램들을 상호 연결해 주는 수단으로 사용	램프와 경시면의 연결 단순한 불빛의 내부에 연속성을 갖는 바닥면으로 구성	각층의 구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각 층의 통합을 이룸 램프는 동선의 기능을 확장하여 물리적, 심리적으로 일관된 관계를 유지하게 함	통로의 의미와 함께 공간화된 의미의 램프를 볼릴 수 있음 내외부의 모호성을 만들어내며 단단한 리듬이라는 통일성을 부여함
The Bibliotheques Jussieu Paris, France	Pern Koornas 1993		외벽과 분리된 실내공간으로 인한 다양한 천정과 불규칙한 곡률의 연출이 나타남	연속된 경시면의 접힘으로 모든 평면은 단일한 궤도로 연결되어 있음 분리되어지지 않은, 끊임없이 연결되어진 수직이기도 하고 기울여지기도 한 내부공간	규모와 다양성으로 인해 점유된 평면은 거의 도로의 효과를 만들어 낸다	풍으로운 순환으로 인해 관람자에게 새로운 공간체험이 가능하게 함
Tokyo International Forum Tokyo, Japan	Rafael Viñoly 1996		중앙의 거대한 공간을 곡선형 램프와 직선형 램프들이 감싸거나 기로지르며 구성되어 있음	곡선 형태와 직선형태가 함께 있어 하나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체험지를 수립하는 어려 공간의 듯한 변화를 줌	서로 다른 공간을 다른 형태의 램프로 연결해 체험자로 하여금 램프 아닌 다른 건축과 같은 간접성을 줌	대형공간에 수직과 수평의 관계에서 체험자로 하여금 거대공간과 자신의 위치와의 관계를 만들어 낸다
Villa V-PRO Amsterdam, Netherlands	MVRDV 1997		외부의 공간이 내부에 밀려 올라감 슬로프로 표현되어짐	동선의 흐름에 의해 입체적으로 연결된 거리 같은 공용공간 3층짜리 슬리브로 사용하여 이음새 없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클로버형 램프를 램프 계단형 비단을 얹어온 바닥 같은 형태로 의해 상호 연결시켜 동선의 흐름을 조성함	진화할 여지를 갖는 트리적인 공간 외부로 개방된 공간을 통하여 수직이 우거진 주변환경을 차별화 요소로 하는 내·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구성을 취함
Kiasma, Museum of Contemporary Art Helsinki, Finland	Steven Holl 1998		수평적 빛을 받는 단면과 내부공간의 연속적 결합으로 공간의 흐름을 만들 어남	곡면, 단면에 의한 빛의 형태와 크기를 이용 자연체계에 변화를 줌	각각의 공간은 여러 가지 공간체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자연과 문화, 형태와 대립적 형태의 상호작용, 물의 작품 대영의 작품처럼 나타나고 있음
Mercedes Benz Museum Suttgart, Germany	UN Studio 1998		대지의 주변 도시 디자인까지 포함하여 설계됨	티타늄 소재와 유리로 마감을 하고 비선형적 형태를 보임	각 공간을 리본형태의 램프로 연결시킴	전통적 강각의 전시를 수용하면서 b 메르세데스 벤츠의 기원과 전통을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이룸
국립김해미술관 김해, 한국	장세양 1998		박물관으로의 진입부에 원형의 원만한 경사로를 만듬	한쪽은 막힌 벽, 다른 한쪽은 기동 형태로 되어있어 내부도 외부도 아닌 중간상태의 공간을 만들어 낸다	대지보다 좁게 위치한 박물관으로의 동선유도를 효과적으로 함	기동사이로 들어오는 자연광의 변화로 체험자는 공간과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가 가능
L-F one Pavilion/Landesgartenschau Wei am Rhein, Germany	Zaha Hadid 1999		내·외부를 구분하는 분리면 자체가 모호하게 처리됨	건물전체에 뒤섞인 통로와 땅을 파고든 형식은 대지의 의미를 동일 시함 평면상의 속도감이나 긴장감이 입면상 경시로로 나타남	건축물 주위의 내부층의 바닥이 미묘하게 혼돈됨	공간들은 풍靡하고 동시적인 유연한 문질률에 의해 계속적인 유연성과 개방성을 가짐
Museum Jean Tinguely Basel, Switzerland	Mario Botta 1999		실내 신체로로 이루어진 오브제 없이 램프로 형성되어 실외를 조망하여 이동 가능하게 되어 있음	수직이동시 원만한 경사를 통해 자유롭게 공간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함	관람객이 전시실에 들어가기 전 외부의 환경과 자연스럽게 만남으로써 스스로가 정신적 관람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는 시간 세움	외부로의 조망을 확보하여 실내가 아닌 실외를 신체하는 느낌을 줌 인접한 공원의 풍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임
Reichstag(New Germany, Parliament) Berlin, Germany	Norman Foster 1999		연속적인 나선형 램프 램프에 의해 중심상과 축성이 부여됨	돔의 내부로 철골 램프가 감싸 내려오면서 도시의 파노라마의 경관을 즐길 수 있음 큐폴라의 형태로 만들어짐	아래 회의장으로 헛빛을 끌어들여 자연광을 가능하게 함	상징적 의미로 활용 넓은 것과 새로운 재료의 개입으로 표현됨
Yokohama Port Terminal Yokohama, Japan	FOA 2002		지형학적 폴딩을 사용함으로써 경시전 비단판을 통한 공간의 연속된 체험을 추구함	피파원된 요소들의 연속적인 통합을 시도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소멸됨으로써 디자인의 풍경을 내부로 끌어들여 디자인 장소를 일제화시킴	도시지표의 자연스러운 연장으로 승선장에 이르게되고 연장된 지표에서 당시로 양식한 선박끼리의 칭출을 획득하는 것	인공적인 조건에서 만들어진 디자인 주변의 랜드스케이프의 특징을 충출해 서 개문화 한것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조성룡 2004		실외에서 실내로의 진입부 곳곳에 직선형 램프를 설치	관람자로 하여금 미술관내로 진입시 자연스러운 통로를 유도해 낸다	깊은 창작형 램프로 인해 관람자는 내부도 외부도 아닌 제3의 공간을 체험 가능하게 함 전시공간이자 도시와 연결되는 공적인 공간	자연으로의 조망을 다양한 높이에서 가능하게 함 전시공간이자 도시와 연결되는 공적인 공간
쌈지길 서울, 한국	최문규 2004		내부형과 벽부형으로써 공간의 연속성을 생동감으로 표현함 체험자는 램프를 따라 연속된 사건을 경험함	중정을 가진 램프로서 중심을 통해 램프가 운영됨	내·외부 통합공간으로 경계를 하물며 단단한 허리를 해소하여 공간의 개방성을 극대화 시킴	수평적 인식동일을 수직적으로 연장시키면서 통과, 소통, 순환, 머무름 등을 나타냄
별엘교회 일산, 한국	유걸 2005		내부형으로 램프를 공간의 주요한 매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내부공간을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내부에서의 불빛감을 제시함	복합적인 형태를 지닌 램프를 따르다보면 공간내부를 모두 조망하게 되는 형식	램프가 내부에 있지만 외부의 모습도 함께 조망기능	부드러운 수직동선을 투명성과 함께 연속적인 파노라마를 나타냄
서울대 미술관 서울, 한국	Pern Koolhaas 2005		내부형으로 계단과 통로와 의자를 통한 램프로써 기능의 다양성을 보여줌	지그재그 형식인 복합적인 형태이며, 공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실현시킴	공간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램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기능으로 나타남	지하와 상부가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로 인해 내부와 외부와의 연동관계가 자연스럽게 흐름
청계천 문화관 서울, 한국	김정철 2005		내외부 형으로 각층이 개별적으로 막혀있지 않고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됨	외부광경을 내부와 연결하여 볼수 있으며 흐르는 전시공간을 연출함	램프의 통선은 전시공간을 연결해주는 통로이자 전시공간 전시공간 자체에 흘흐르는듯 연속성을 기진 공간	청계천의 방향성, 흐르는 물의 상징적 의미와 시기적 연속성을 나타냄

밀집화 됨에 따라 건축물들은 자연스레 수직으로 확장이 되어 가고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기능을 가진 램프는 제 3의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기능을 만족하면서 심미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자연과의 조우를 통해 새로운 공간에서의 체험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확장된 개념으로서 램프의 의미를 공간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특성을 살펴 현대공간에서의 램프가 어떤 표현과 개념을 부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돋고자 한다.

### (1) 경계 없는 통합공간으로서의 램프

램프는 수직공간을 층을 나누지 않고 부드럽게 통합시키며 중앙 혹은 옆면에 아트리움이나 중정, 대공간, 공공 공간 등을 만들어낸다. 램프 자체의 기능은 동선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건축물의 기능에 따라 전시시설, 동선을 확장시키는 공간, 주변을 조망하며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공간과 통로, 경사로의 허물어진 경계는 두 개 이상의 단위공간과 주공간을 분화하거나 부가하는 형태로 램프의 공간과 주공간을 갖는 공간구조인 통합공간에 대해 램프공간은 하나의 단위공간을 내부공간으로 갖는 공간구조를 가진다. 단일공간에 램프가 설치되어 전체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방식은 메르세데스 벤츠 뮤즈엄, 구겐하임 박물관, 새독일의회 큐풀라 등에서 보여 진다. 이 중 메르세데스 벤츠 뮤즈엄의 경우에도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층의 개념은 없다. 이것은 유연한 리본이 감싸 각 층을 구별할 수 없이, 각 층의 경계가 없이 통합시키고 있다. 이러한 유연한 방식으로서의 램프의 기능은 현대건축공간에서 중요한 장치로서 표현된다.

<표 4> 경계 없는 통합방식으로서의 램프의 특성

건축물	Guggenheim Museum		Mercedes Benz Museum		Reichstag(New Germany, Parliament)	
	Frank Lloyd Wright	1959	UN Studio	1998	Norman Foster	1999
램프의 공간구성	원형램프를 형성하여 공간내의 상하수직으로 연한 공간이동이 가능하며 주변으로의 공간으로도 확장.	엇갈린 리본형태 두개의 나선형으로 구성되어 두 가지 방향으로 선택함에 따라 각 공간을 연결시킴.	램프를 오르면서 본회의 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국민을 상부에 위치시켜 시민우선이라는 상징성을 부여.			
통합방식으로서의 램프사례						
특성	· 층구분이 없이 층의 경계를 통합. · 단일공간과 주공간을 통합하는 공간. · 연속적 흐름을 통한 중첩된 프로그램들을 소화. · 상부 투라이트를 통한 채광과 동시에 방향성을 획득, 유도.					

### (2) 내·외부공간의 인터페이스로서의 램프

랜드스케이프적 요소로 인하여 대지의 기복을 이용하여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내부를 외부로 확장시키거나 외부를 내부로 끌어들인다. 동선의 기능을 확대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주프로그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함은 물론 프로그램 간에 존재하는 이질성에 적절한 간격과 통합을 가져온다. 이것은 공간적 의미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도입하여

램프와 공간요소들 간의 관계를 최대화하고 더 나아가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까지 이용하여 내·외부공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인터페이스의 역할로서의 '램프'로 불릴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MVRDV의 빌라 브이피알오, 렘클하스의 쿤스트할, 쥬시에 도서관등이 있다. 빌라 브이피알오는 대지 지형의 연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지형을 바닥판의 개념으로 연속시켜 끌어들임으로 내부와 외부와의 상호작용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외부로 개방된 공간으로 인해 주변 환경을 차경적 요소로 받아들이게 한다. 이런 요소는 내부를 외부로 확대시킴에 있어 자연스러운 동선의 흐름을 만들어 내게 된다.

<표 5> 내·외부공간의 인터페이스로서의 램프

건축물	Villa V-PRO		Kunsthal, Temporary Art Center		The Bibliotheques Jussieu	
	MVRDV	1997	Rem Koolhaas	1992	Rem Koolhaas	1993
램프의 공간구성	동선의 흐름에 의해 입체적으로 연결된 거리 같은 다기능적 공동공간으로 구성.	통로와 출입구 역할을 함께 동시에 지향의 레벨을 연결해주는 공간속에 삼인원 내·외를 연결하는 무질서속의 질서.	네트워크를 형성한 공간으로서의 램프는 다양한 선택, 다방향성의 공간, 다변적공간을 구성.			
내·외부 공간의 인터페이스로서의 램프사례						
특성	· 외부의 환경과 공간을 일치시키는 역할. · 공간을 이루는 중요인자로서의 중간자. · 공간에서의 연속적인 내·외부의 관찰로 경계를 모호하게 함.					

### (3) 자연에 융화되는 오브제로서의 램프

오브제로서의 램프는 자연의 자유로운 형태적 특성을 따르면서 그 자체가 기념비적인 역할도 하고, 공간 내에서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구축물로서 사용된다. 램프의 움직임에 따른 다양한 장면들의 연속된 체험은 공간과 자연의 광경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개념을 가져온다. 이런 개념은 램프를 단순한 수직이동이나 과거의 이념적인 면과는 또 다른 감성적 공간으로 재해석

<표 6> 자연에 융화되는 오브제로서의 램프

건축물	Central library_Delft technical university		L-F one Pavilion		Island City Central Park GRINGHIN	
	mecanoo	1997	Zaha Hadid	1999	Toyo Ito	2005
램프의 공간구성	건물을 구성하는 형태와 부로 산책을 할 수 있는 경로는 자연과 동일시되는 오브제적 역할의 요소로서 존재.	자연적인 경관을 구성하기 위해 다중적이고 미묘한 영역에서의 새로운 유체적공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서 램프.	활동적인 건축공간의 동선과 위장한 건축물이 자연속의 오브제로서의 역할을 담당.			
자연에 융화되는 오브제로서의 램프사례						
특성	· 잠재된 동적공간으로서 매우 풍요롭고 다양한 기능으로서의 공간형성. · 건물전체에 뒤흔인 톤로와 땅을 한지는 형식으로 대지의 의미를 분명히 힘들게 함. · 자연과 어울리는 오브제로서 주변의 경관을 스며들게 함.					

가능하게 만들면서 그 공간을 지각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의 일부로서의 때개체 역할로 자연과의 교감을 이를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례로는 델프트 공대의 센트럴 라이브러리, 자하 하디드의 L-F one, 토요이토의 Island City Central Park GRINGRIN에서 나타나는데, 델프트 공대의 센트럴 라이브러리에서는 자연의 일부분을 형상화한 경사로를 활용해 주변의 자연경관에 그대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위의 조경부분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면서 건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내면서 건축물 스스로를 그대로 오브제로 만들어 버린다. 이것은 마치 대지의 아래 부분에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는 느낌이 들게 하며 건물 윗부분의 경사지형은 수직이 동요소리기보다는 체험자들의 휴식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 더 가깝게 만든다.

#### (4) 도시적 개념의 램프

건축자체가 도시의 조직이 아니라 도시의 연장 또는 자체가 도시라는 개념을 가지게 된다. 건축 내부에 도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상점들을 두어 내부공간의 도시 거리화를 꾀하고 있는데 서로의 공간의 상호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비선형적 경사바닥을 사용해 순환통로로써의 기능을 하게 한다. 이러한 경사바닥은 공간을 연속적이고 가변적이게 만들면서 도시와 공간을 구분 짓지 않고 도시를 내부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임으로서 건축을 도시적 스케일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든다. 일산 신도시의 중앙부에 위치한 벤엘교회-복합문화집회시설인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의 계획은 도시계획에서 허용하는 최대 불률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사람들의 동선을 편리하게 연결하고 내부에서의 길찾기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도로 레벨에서 6층 로비까지 시각적, 공간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경사면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공공성과 종교성의 혼재, 하층부를 도시에 속하게 함으로써 램 쿨하스의 도시와의 관계에 의한 프로그램의 띠와도 연관을 가진다.

<표 7> 도시적 개념의 램프

건축물	Barcelo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벤엘교회		쌈지길	
	Richard Meier	1992	유 걸	2005	최문규	2004
램프의 공간구성	건축물을 오르면서 외부를 조망할 수 있어 도시의 광장으로 시각을 열어 준다.	건축적 산책로의 개념을 반영하여 내부램프를 통해 도시와의 연계라는 논제를 건축적으로 대면 하려한다.	인사동의 멋을 담은 골목길들을 나선형으로 쌓아올린 충 개념이 아닌, 길과 길이 이어진 수직적 골목길개념구성			
도시적 개념의 램프사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램프에 도시적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건축공간이 도시를 수반함.</li> <li>실내가 실외로 확장되고 실외가 실내로 유입되면서 개념적인 소통이 이루어짐.</li> <li>자연스러운 도시의 흐름을 연결시켜 공간의 다변화된 확장을 이룸.</li> </ul>					

#### (5) 부드러운 수직 동선의 램프

완만한 경사도를 가진 램프를 이용해 수직이동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만들어 준다. 부드러운 경사를 가진 램프는 적막한 공간에 움동을 가진 운동감을 형성하며 공간으로의 시선을 이끌어내어 공간을 감싸 안은 형상으로 자연스러운 융합이 된다. 공간에서의 적절한 분리와 부드러운 연결은 섬세한 활력을 가진 공간의 연속체로 나타나는데 도쿄포럼의 경우 커다란 공간을 램프를 이용해 상부로의 이동을 부담감 없이 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것은 시각적으로도 대형공간에 수직과 수평의 또 다른 느낌을 만들어 내면서 체험자로 하여금 거대공간과 자신의 위치와의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한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사용 할 경우 공간은 체험자에게로 다가오지 않지만 이러한 열린 경사로를 따라 이동할 경우 공간 자체를 감상하면서 천천히 상부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표 8> 부드러운 수직동선의 램프

건축물	Villa La Roche		Kiasma, Museum of Contemporary Art		Tokyo International Forum	
	Le Corbusier	1923	Steven Holl	1998	Rafael Viñoly	1996
램프의 공간구성	곡선형벽면을 더욱 풍요로운 공간으로 해주어 입면상 다양한 각도에서의 변화를 유도.	곡면의 연속된 램프의 동선은 곡면, 단면에 의한 공간의 형태와 크기를 이용하여 자연체광에 변화를 준다.	유선형의 유리로 덮힌 축공간을 따라 생긴 램프는 장대하게 펼쳐진 공간을 형성함.			
부드러운 수직동선의 램프사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진 건축 내에 사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진 동선을 부여함.</li> <li>체험자로 하여금 극적인 장면을 유연한 공간으로 느끼게 함.</li> <li>곡선과 곡선의 만남으로 빛에 대한 다양한 공간반응을 연출.</li> </ul>					

#### (6) 건축공간과 융합하는 램프

램프는 외부의 연장 혹은 내부의 확대로 인해 내부와 외부의 협연한 경계가 없어진다. 램프는 외부공간으로의 연장을 함과 동시에 내부의 확대로 인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협연한 경계는 모호해진다. 이것은 표면과 공간의 모호성, 내지는 2차원과 3차원의 모호함으로도 표현되어진다. 건축공간을 내부와 외부로 나누지 않고 건축과 공간사이를 재조직하여 일체화된 건축공간으로 물리적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이자 건축공간과 자연의 풍경을 담은 숨 쉬는 공간으로서 융합된다. 요코하마의 폐리선착장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소멸됨에 따라 대지의 풍경을 내부로 끌어들여 일체화 시킨다. 이것은 대지의 연속으로 인해 자연에서의 경사진 대지를 공간까지 끌어들여 경사진 바닥판을 통한 공간의 연속된 체험을 만들어 낸다.

&lt;표 9&gt; 건축공간과 융합하는 램프

건축물	Yokohama Port Terminal		Centre Multi-Loisirs		Musée de l'automobile mercedes-benz	
	FOA	2002	Actar Arquitectura	2000	asymptote	2001
램프의 공간구성	많은 선택적 통로와 길립길을 둘로써 역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제거하고 많은 이벤트를 접하게 함.	건물의 램프지붕이 대지레벨과 같아 공원 역할을 하는 건축위에 또 하나의 새로운 공간발생.	bmw를 상징으로 속도와 운동의 조형적 구조를 연속적인 순환구조의 램프를 통해 표현함.			
건축공간과 융합하는 램프사례						
특성	· 대지의 연속선상으로 건물과 램프를 일체화시킴. · 체험자는 건물자체를 인식하기보다 자연의 부속물 혹은 자연의 일부분으로 인식함. · 공간과 램프의 조화는 건축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함.					

#### 4. 결론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램프는 수직적 통로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시작적 만족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며 공간 내부와 외부와의 관계를 만들어낸다. 수직통로로서의 램프가 목적공간과의 관계에서 형태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합축하고 있던 의미 역시 사회적 요구, 재료의 발달,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적 표현으로 관찰되며, 결국 현대에 이르러서는 공간을 재조직하고 이들에 대한 의식적 결합의 매개체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램프의 확장된 개념이 유형적 특징으로 표현된 램프의 공간적 유형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램프공간은 이동 통로의 역할과 함께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다. 공간을 통합시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통합된 공간에 다른 기능을 부여해 사용하게 하고 공간에 램프를 일치시킴으로써 경계가 없는 방식으로의 통합공간을 만들어 낸다. 건축물에서 내·외부의 경계가 모호하게 표현되면서 램프는 내·외부공간의 중간자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로서 작용을 한다. 또 자연을 건물 내로 끌어들이거나 건물 자체를 자연화 시키면서 자연에 융화되는 오브제로서 나타나고 있다. 수직이동에 있어서는 극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수직동선으로 공간의 장대한 장면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개념들은 점점 확대되어 실내와 실외간의 개념적인 소통을 이루어내며 내부에 도시적 개념을 끌어들이며, 실내·외의 경계를 없애 대지의 연속으로 자연의 부속물 혹은 일부분으로 인식하게 하여 건물과 융합하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본 연구에서는 램프가 사용된 공간이 획일적인 수직 이동의 요소에서 벗어나 전체 공간 내에서 독립된 환경을 부여받아 건

물의 부속적인 요소가 아닌 건물의 성격을 지배하는 공간으로, 멈추는 장소가 아닌 이동하는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전체를 파악하는 공간으로 확장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확장된 램프의 유형에 따라 공간적 의미가 다양해짐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은 현대 공간에 나타나고 있는 램프의 공간적 유형을 분석하고 그 특성들을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램프공간을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김평탁, 건축용어 대사전, 기문당
2. 민현식, 땅의 공간-땅의 형국을 추상화하는 작업, 도서출판 미건사, 2000
3. C. Norberg Schulz, 실존 공간 전축,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1994
4. FOA, EL Croquis
5. Gaston Bachelard, 불의정신분석/초의 불꽃 외, 민의식 역, 삼성세계사상
6. Julie Rose, Paul Virilio, Bernard Tschumi, A Landscape of Events, MIT Press, 2000
7. Le Corbusier,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장성수 역, 태림문화사, 1991
8. Pamela Johnston, The Function of the Oblique : The Architecture of Claude Parent and Paul Virilio, AA Publishing, 1996
9. 김한수·이영수, 건축공간구성에서 연속성 개념의 도입기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제20권 제2호, 2000
10. 이경식·심우갑, 현대건축에서의 계단/램프의 표현방식과 의미확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1권 제2호, 2001
11. 박경아·김인철, 기울어진 바닥판의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3권 제1호, 2003
12. 이승우, 계단의 공간적 특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9호, 2003
13. 편홍범, 건축공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91
14. 조정현, 전이공간으로서의 계단에 관한 연구, 전국대학교 석사논문, 2001
15. 이경식,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수직통로 개념과 목적공간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2
16. 김범석, 수직동선의 유형과 공간구조에 따른 수직동선의 해석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논문, 2004
17. 소용수, 바닥면의 경사화를 통한 건축디자인 접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05
18. 변용희, 공간구성 및 형태표현에 나타난 수직이동공간의 의미 확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5
19. 김영실, 리차드 마이어의 박물관 건축에서 나타나는 경사로의 특징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논문, 2005
20. 윤현아, 다중이용시설 계단과 램프의 기능적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06

<접수 : 2007. 4. 30>